

해피밀 시즌 5-3호를 발간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께,

2025년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합니다. 송구영신예배에서 새해의 소망을 품었던 시간이 엇그제 같지만,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애굽의 고된 종살이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어 구원하시고, 홍해와 광야의 험한 여정을 지나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길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으신 것처럼 이끄셨기에 가능한 은혜의 여정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선 이스라엘은 여리고와 아이 성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모든 열방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정복한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지역들이 남아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땅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눈앞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으며, 약속의 완성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한 해의 마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2025년의 마지막 순간까지 평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변함없는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2025년 12월 어느날
수원평안교회 담임목사 정재광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read 'Park Jung'.



주 10:16-21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함

16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17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18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러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19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20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

해피인사이드

이동완 목사

오늘 본문에서는 도무지 믿기 힘든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서 내려가지 않았고, 달이 멈춰 서서 어두운 밤을 환하게 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의 신빙성은 13절 말씀에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는 말을 통해 더욱 공고하게 됩니다. 지금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트리거(Trigger)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기도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를 명상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한 없이 꺼내며, 소위 명상을 하여 생각정리, 새로운 발상을 얻는 시간 정도로 여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단순히 경건의 한 순간으로만 여기며 종교적 모습으로만 대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하니, 기도를 해야 마음이 편하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여호와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천지를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는 그러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사실 터무니없어 보이고, 또 믿기 어려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한계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그분의 전능함을 힘입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때론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도 현실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능성을 재는 용도로 기도하는 모습도 봅니다. 현실적인 조언을 구하는 기도 정도만 멈춰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의 고백은 우리의 내재적인 한계에 갇혀선 안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한계를 벗어던지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터무니없는 기도라 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기도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는 근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마치 트리거를 잡아당겼을 때에 작동하듯이, 그 모든 작동이 되게 하는 근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 해와 달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멈춰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이라는 대적을 이기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분의 일하심이 있게 우리의 기도는 대적과 원수에게 효과적으로 발동될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오늘 나의 삶에서 어떤 최선 다해야 할까요?
2. 최근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삶의 지점이 있으신가요?





수 10:16-21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함

16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17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18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러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19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20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

해피인사이드

이동완 목사

오늘 성경 말씀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아모리 연합군을 어떻게 이기게 되었는지 제법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지만, 그 말씀을 들리게 하는 장르로서 '역사서'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역사책답게 매우 구체적인 승리의 방법과 서사를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직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해와 달이 멈추고, 승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펼치신 기적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살아갔는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순종이라는 구체적인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호수아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막게다 굴에 숨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혜롭지 못하게 굴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혹여나 굴 속으로 들어갔다간, 아모리 군대의 게릴라 전에 낭패를 당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저 굴을 돌로 막아 버립니다. 아모리 족속이 역전을 바라며 들어간 그 막게다 굴이 이제는 감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왕들이 갇힌 사이 여호수아와 그 군대는 막게다 굴에 들어가지 못한 후군을 공격합니다. 그들이 성에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진멸하고자 합니다. 이 19-20절 말씀을 읽으며 상상해 봅니다. 얼마나 치열하고 긴박한 전쟁의 모습이었을까요? 후군은 빨리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 반격을 준비하고자 신속히 후퇴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적군이 성에 들어가기 전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멸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자신들의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사실 이미 하늘을 멈추고 달을 멈춘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대적을 무찌르고자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 임재하심, 함께하심의 기적 속에서 우리는 충분한 순종과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신령한 복과 지혜를 가지고 분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대적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오늘 나의 삶에서 어떤 최선 다해야 할까요?
2. 최근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삶의 지점이 있으신가요?





수 10:22-27

주 안에서 강건하라

... 25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26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27 해 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해피인사이드

이동완 목사

오늘 본문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신약시대를 살고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의 혜택을 누리는 우리에게 이 장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건으로 목상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아모리 왕들의 목을 발로 밟습니다. 이 모습은 시편 110편 1절 말씀 "[시 110:1]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 시편의 고백은 궁극적 메시아,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굴복시킬 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이 왕들을 나무에 매달입니다. 신명기 말씀(신 21:23)에 따라 나무에 매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라는 나무 형틀에 매달리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며 예수님의 죄를 목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으신 그분의 대속적 은혜를 목상합니다.

또 이 왕들은 자신들이 숨었던 막게다 굴에 매장됩니다. 그들은 그 굴 밖을 나갈 수 없습니다. 그 무덤에선 도무지 부활의 소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의 굴에 매장되었던 예수님께서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자신의 발아래 굴복시키신 그리스도의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며 고린도전서 15장 25-27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으로 선포합니다. "[고전 15:25]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여호수아는 아모리 왕들의 이 참혹한 죽음을 교보재 삼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들의 대적을 물리치셨으니,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대적의 죽음을 보고 강하고 담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적을 발아래에 두시기 위해 우리 대신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굴에 매장되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사, 궁극적인 왕으로 영원까지 통치하고 다스리실 그리스도 예수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동행을 누리며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엡 6:10)"하 여지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삶에 있는 죄와 사망의 잔당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십시오.

해피인플루언서

1.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한 적이 언제였나요?
2. 오늘 내가 예수의 능력으로 담대해야 하는 죄의 잔당은 무엇인가요?





고비 고비 마다

주 10:28-39

28 그 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29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립나로 나아가서 립나와 싸우매 30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

해피인사이드

이동완 목사

오늘 본문의 범위는 제법 깁니다. 28-29절 말씀은 또 제법 지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막게다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립나를 정복합니다. 립나 정복이 끝나자 라기로 가야 합니다. 라기스의 적들은 대진을 세워 여호수아를 공략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겨버립니다. 라기스를 이겼다는 소식이 게셀 왕 호람에게 전해지자, 그는 동맹군을 결성하여 여호수아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무찔러버린 여호수아는 이제 에글론을 공격합니다. 에글론 정복을 마치자마자 이제 그는 헤브론과 싸웁니다. 헤브론을 정복하자 이제 드빌이 보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마저 정복합니다.

이 모든 정복의 이야기를 보며, 저는 두 가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열심히 타격훈련 하는 야구선수입니다. 쏜살같이 날아오는 야구공, 쉴 틈 없이 날아오는 야구공을 치고 또 치고 또 치는 야구선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또 하나는 이소룡이 주연한 '사망유희'라는 영화입니다. 탑 꼭대기까지 올라가며 이소룡은 쉬지 못하고 각 층마다 있는 보스급 무술인과 싸웁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이 마치 이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연속 속에서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얼마나 지쳤을까? 버겁진 않았을까? 묵상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여호수아 못지않고 이소룡 못지않을 때가 있습니다. 쳐내고 쳐내고 또 날아오는 이슈들, 업무들, 책임들, 의무감들이 우리에게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호흡을 가다듬기도 힘든 그러한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날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저 지쳐 쓰러져 있지 않으십니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여호수아의 이 모든 연속적인 전쟁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여호수아를 붙드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담대함을, 용기를, 체력을, 도울 손길을, 또 자신의 능함을 여호수아에게 공급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의 사역 경험상 늘 느끼는 것은 바쁠 때에, 해야 할 것이 많을 때에 가장 은혜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고, 쉬다고 해서 충만해지는 것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버겁고 힘들 때 그분의 충만한 임재와 도우심을 느끼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분을 찾고 부르며 의지하게 됩니다. 매 순간 고비를 넘을 때마다 그분의 은혜로 담대히 그 산지를 오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바쁨, 우리의 고비고비는 우리를 천성문 앞에 도착하기까지 붙드시는 그분의 손길 아닐까요?

해피인플루언서

1. 요즘 많이 바쁘신가요?
2. 오늘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봅시다.





수월했다.

주 10:40-43

40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겟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41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42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43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해피인사이드

이동환 목사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남부 정령이 끝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까지 이야기를 통해 연속적인 전쟁의 한 양상을 만났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전쟁의 연속, 계속되는 전투들의 연속이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그 모든 전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니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단번에'라는 표현은 이 모든 전투들이 수월하게 끝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모든 전투의 연속이 끝난 뒤 회상하며, 이 전투의 연속이 '수월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읽으며 전혀 수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투의 연속, 동맹군의 난입, 또 적진의 견고함등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분명 힘든 일 앞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일이 끝나고 '수월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저도 한 주간의 사역을 마친 뒤 이러한 마음이 늘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월했다. 그래도 해냈다." 그 모든 과업을 마주할 때에는 "할 수 있을까?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다 끝난 뒤에는 '정말 수월했다'는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까? 42절 말씀의 앞부분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수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인생에 놓인 전투들, 지금 당장한 너무나도 어렵고 부담스럽고 불가능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전투가 끝난 뒤 우리는 '수월했다'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우시니 말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예상했던 모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진 일을 보며 하나님의 '선하심' 또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전투 앞에서 너무나도 과도하게 부담을 느끼며, 여유를 가지지 못하여, 예민해지거나 신경질적여져선 안됩니다. 불평, 불만의 고백을 멈추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분명 부담스러운 일로 느껴질 수 있으나, 이후 수월한 일로 고백할 미래의 자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여유와 의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함께하심,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최근 너무나도 큰 부담감을 느낀 일이 있으신가요?
2.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수월했다' 고백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추 11:1-15

말씀하신 대로

1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2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3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4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5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 가에 함께 진 쳤더라 6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

해피인사이드

포아론 목사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두렵고 심히 떨립니다. 그때 우리를 위로하는 다양한 말들이 있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 위로는 우리를 일으키곤 합니다. 낙심했던 마음에 다시 불을 지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그러한 지체가 있다면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격려보다 효능 있는 격려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참으로 평안과 위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능히 할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로막는 무리는 참으로 많았습니다. 어찌나 많았던지 성경은 그를 두고 해변의 수많은 모래(4절)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과 병거도 '심히' 많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얼마나 떨렸을까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엄청난 군대의 숫자와 분위기 가운데 그들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내 모든 것들을 압도하고 남는 한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넘겨줄 것이다,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리라'

주님께서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은 말씀대로 8-9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이들의 인생은 '이미' 성취된 약속과 '아직' 성취되지 못한 약속 한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예수님)를 선포 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비록 여전히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은 이미 확정된 예고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확신의 위로를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소망을 품으며 나아가시는 평안의 성도님들의 되시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누군가의 위로로 힘을 얻었던 기억이 있나요?
2. 누군가가 위로해 주었지만 채워지지 않았던 기억이 있나요? 반드시 우리를 채우실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힘차게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수 11:16-23

말씀하신 대로 2

16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겟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17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할락 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죽였으며 18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19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20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

해피인사이드

포아론 목사

취업 후에 처음으로 일을 접할 때는 두렵고 떨립니다. 혹시 틀리진 않을까 매번 직무 기술서를 확인합니다. 상사에게 묻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일의 요령이 생기면 이와 같은 일들은 도외시되곤 합니다.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효율적이고 편한 방식들을 찾고 그것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너무나 복되고 즐거운 소식입니다. 오늘 이들의 승리에는 어떤 원동력이 있었을까요? 막강한 군사력이었을까요? 뛰어난 지력이었을까요? 최첨단 무기가 있었을까요? 그들의 승리의 원동력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근거로 여호수아 11장에만 4번(12, 15, 20, 23절)이나 ‘모세에게 명령한 것과 같이,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잠시의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줄 수는 없습니다. 순종할 때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종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복이 반드시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전쟁을 매우 오랜 기간 지속했습니다(18절). 그 기간이 얼마나 긴지는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기간을 허락하시고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나긴 구약의 시간에 마침표를 찍으신 것과 언제일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그날은 모두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두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랑 맞지 않다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보다 크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선하심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순종했는데 기대했던 결과랑 다른 적이 있으신가요?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외치며 나아갔던 적이 있으신가요?





수 12:1-6

오래전부터

1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2 시혼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압복 강까지이며 3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뱀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슭까지이며 4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5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

해피인사이드

포아론 목사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달았던 적이 있나요? 시간과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감정을 추스르고, 상황을 돌아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세세하게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시시 때대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복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이어 본격적인 땅 분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땅 분배의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 요단 강을 건너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호수아가 아닌 모세가 땅을 차지한 이야기죠. 그 땅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여호수아서인데 왜 여호수아는 모세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차지한 땅도 아닌데 왜 구태여 요단강 동편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정복의 이야기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보다 어린 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시작은 가나안일 것입니다. 여리고 성 일수도 있고, 아이 성 일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요단 강 동편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가데스 바네아부터, 더 멀리는 시내산, 홍해, 애굽, 아브라함, 에덴까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는 땅 분배의 이야기를 요단 강 동편부터 꺼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인생이 주님의 섭리에 종속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순간이 주님께 속했고,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소중히 여기고, 늘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오늘은 12월 24일 예수님이 오시기 하루 전 날입니다.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돌아보며 설레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달았던 적이 있나요?
2.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인생을 돌아보며 한탄했던 적이 있나요?





수 12:7-24

승리의 노래를!

7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 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8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겟 곧 헛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9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엘 겐의 아이 왕이요 10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아르뭇 왕이요 11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12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

해피인사이드

포아론 목사

아이들은 자신이 이룬 것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멸한 왕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습니다. 무려 서른한 명의 왕이었습니다. 보잘것없던 민족이었습니다. 노예로서 많은 노역을 감당하며 신음만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는 여섯 민족을 격파하고, 서른한 명의 왕을 무찔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는 후대 사람들은 감탄을 감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놀라운 은혜의 수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기 위해서입니다. 완벽한 승리를 안겨주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 한 번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후에 또 승리해야 하고, 또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는 더 이상 이를 것이 없습니다. 그것 하나로 우리는 영원토록 기쁘하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승리는 모든 적을 무찔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서른한 명의 왕을 무찔렀지만,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대적을 무찔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기록한 승리는 끝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3장으로 가서 살펴보면 아직 정복이 덜 끝난 지역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결국엔 승리하사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는 담대하게 이미 승리하였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모든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 깃발을 꽂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모든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팔을 불며 삶 곳곳에 승리의 소식을 알리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이미 승리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기분은 어떤가요?
2. 승리의 기쁨을 누구에게 알리고 싶으신가요?





주 13:1-7

잠깐 멈춰 서서

1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2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3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4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므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5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의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

해피인사이드

포아론 목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합당한 근거를 요구합니다.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합당한 근거를 찾습니다. 사람을 채용할 때도 채용해야 하는 합당한 근거를 구합니다. 투자를 할 때도 합당한 근거를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합당한 근거란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편적인 기준에서 알맞은 것이 합당한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어떤 근거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합당한 근거들이 있을까요? 모두가 알맞다고 여기는 합당한 근거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엔 합당하지 않은 이야기만 준비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와 친척 집을 떠난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했던 것.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용서했던 것. 모세가 여호와를 믿고 바로 왕에게 대적했던 것. 다니엘이 풀무불에 들어간 것. 어느 하나 합당한 근거들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애매모호하고 이해되기엔 어려운 것들만 가득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본문도 합당한 근거가 그다지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들이 아직 얻어야 할 땅은 매우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땅을 분배하라. '다음 리더를 세워라, 어떻게 땅을 정복하라, 여기까지만 해라' 등의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아직 정복하지도 못한 땅을 분배하라는 말은 참으로 이상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승리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과연 승리한 것이 맞는가'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분명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비록 여전히 승리의 합성을 듣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승리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승리가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소식을 듣고 삶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승리의 편에 속한 자답게 당당한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서는 이 모든 승리를 우리와 만들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단번에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싸움들을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모든 것들을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승리 가운데 담대함과 설렘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합당한 근거를 요구받았던 적이 있나요?
2. 말씀으로 인하여 확신을 경험했던 적이 있나요?



장년부 가정예배

우리 식구 다 같이 <여호수아 12장 7-24절> 쓰기

7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 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8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겟 곧 헛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9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뵤엘 곁의 아이 왕이요

10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11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12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13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14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15 하나는 립나 왕이요 하나는 아들람 왕이요

16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뵤엘 왕이요

17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18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랏사론 왕이요

19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20 하나는 시므론 므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21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므깃도 왕이요

22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욱느암 왕이요

23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24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서른한 왕이었더라



수 13:8-14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다

8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와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9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10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11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12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룻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

해피인사이드

전보아스 목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당시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지휘하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선 비록 여호수아의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 시대 때 일어났던 일들을 확인시켜 주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 단지 그들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게 합니다. 부모님의 신앙,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영적인 유산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축복이자 신앙의 바탕이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음 세대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전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다른 모든 지파들은 기업으로 땅이 주어졌으나 레위인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레위지파는 모든 지파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세속적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신다는 것을 레위인들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십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그 어떠한 것을 기업 삼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기업 삼아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다른 모든 지파에서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을 통하여 소득을 얻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제물들을 레위인들이 먹고살았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먹이고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이었습니다. 물론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사명이었지만, 이 사명은 단지 한 지파가 홀로 감당하는 사명이 아닌 모든 지파가 함께 감당하는 사명이었기에 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은 다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들과 주의 종들에게는 너무 인색하거나 그들을 외면하며 지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를 위해 표징의 삶을 살게 하신 주의 종들에게 공훈과 은혜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2.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어떠한 책임감을 붙들고 계십니까?





수 13:15-23

남의 떡이 커 보인다

15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16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17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분과 바못 바알과 벤 바알 므온과 18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19 기랴다임과 십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20 벳브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벤 여시못과 ...

해피인사이드

전보아스 목사

모세 시대 때 요단강 동쪽 편 땅은 두 지파 반에게 이미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록 요단 동쪽 편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 이유는 그 땅이 가족을 키우기에 적합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많이 소유하고 있던 이들은 굳이 가나안 땅이 아니더라도 그 땅에 만족하며 그곳에 정착하길 원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앞으로 있을 전쟁에 이들이 동참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땅에 정착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분명 요단강 동편이 아니라 서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기에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보다 내 마음에 드는 걸 더 선호하고 찾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리 선택권이 내 손안에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욕심에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할 때 그 지파의 지도자에게 한 지역을 주어 알아서 분배하라고 하지 않고, 그 지파의 가족 숫자에 따라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15절). 이스라엘에는 다양한 가족들과 상황이 존재하였습니다. 슬로보핫의 딸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에 아들이 없으므로 기업을 물려받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러한 가족들을 배려하여 땅을 가족의 숫자대로 분배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소외되는 가정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알맞게 기업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욕심 때문에 남의 떡이 내 떡보다 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내가 더 우쭐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와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비교하거나 우쭐하거나 주눅 들 필요 없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 중에 불만을 품고 살아가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2. 무엇이 우리 삶 가운데 감사와 만족보다는 불만과 불평을 초래하게 만드는지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표본

추 13:24-33

24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25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랍바 앞의 아로엘까지와 26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브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27 골짜기에 있는 벤 하람과 벤니므라와 숙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혼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 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28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29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

해피인사이드

전보아스 목사

요단강 동쪽 편은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요단강 동쪽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 원하고 선택하였기에 모세 시대 때 주어진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당장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들은 이곳에서 이방인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모압, 미디안, 가나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당장은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땅 가운데 그들의 기업은 결국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편에서도 레위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으셨으며 이들을 표본으로 세워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표본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비록 기업으로 땅을 물려받지는 못했음에도 궁핍하지 아니하고, 곤고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레위인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살아내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는 다 레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백성의 삶과 모습이 열방 가운데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하나님 백성의 표본 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보고 도전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2. 반대로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삶의 터전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수 14:1-5

모두가 동의하는 방법

1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3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음이었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4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

해피인사이드

전보아스 목사

요단 동쪽에서는 모세가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선 여호수아가 요단강 서쪽 땅을 나머지 아홉 지파 반에게 나누어주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이익이 걸린 일을 결정할 때면 사람들은 예민해집니다. 한 번의 결정으로 영원히 그 기업을 물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서로가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자신의 방식대로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주지 않고 제비를 뽑아 나누어주었습니다. 아무도 이 일에 개입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대로 땅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말기는 방법으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이후 아간도 제비 뽑혀서 그의 죄악이 발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땅을 분배하는 사건이라면 더욱 사람의 개입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제비 뽑기로 땅을 나누었습니다. 이 제비 뽑기는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후에 분쟁을 일으키거나 아쉬운 소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기 2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다가 억울해하거나 불만을 나타낼 것을 아시고 이미 모세 시대 때부터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따라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하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호수아에게 불만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예민한 일이 발생했을 때 지파들이 서로 분쟁하고 다툴 수도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이 일로 인하여 다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경험보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때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 하십니까?
2.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모든 문제의 답을 이미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가까이 하시길 소망합니다.





수 14:6-15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6 그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7 내 나이 사십 세에 여호와와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8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

해피인사이드

전보아스 목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 서쪽 땅을 놓고 제비 뽑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유다 지파의 지도자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 가나안에서 가장 위험하고 점령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는 헤브론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이유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가장 강력한 거인 족속 아낙 사람들이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헤브론 땅을 요구한 갈렙의 결정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유다 지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정복하기 가장 힘든 곳 헤브론을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였기 때문에 그가 밟는 모든 땅은 영원히 갈렙과 그의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이 밟은 땅을 그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가 속한 유다 지파의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갈렙은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었지만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갈렙이 가장 위험한 헤브론 산지를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 산지를 점령할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그가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항상 변함없는 주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과 약속의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비록 갈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이가 매우 늙었지만, 갈렙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간구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말씀의 지혜와 힘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나는 갈렙처럼 꾸준히 기억하며 믿고 있습니까?
2. 내 기억 속에선 이미 잊혀진 약속의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주님께선 오늘도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줄 믿습니다.



유아유치부 가정예배

우리 식구 다 같이 <여호수아 14장> 색칠하기

여호수아 14장 1-15절 말씀을 기억하며 자녀들과 함께 색칠공부를 해보아요.
갈렙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어요!





추 15:1-12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1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2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3 아그랍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4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해피인사이드

김선준 목사

오늘 본문은 유다 자손의 지파가 제비 뽑은 땅을 분배받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유다 자손들이 분배받게 되는 땅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과 13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의 일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시간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시간의 때와는 다를 수 있지만, 때로는 더디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에서 동서남북의 경계와 지역의 이름이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응답은 매우 구체적이며 실제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매우 구체적이며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니시며, 우리의 삶에 구체적이며 실제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개입이 우리의 삶에 머무를 수 있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과 실제적인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유다 자손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유다 자손의 지파가 '제비 뽑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우연의 사건과 같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우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서 매우 구체적이며 실제적으로 개입하신 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유다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문제들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실제적으로 개입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우연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삼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나의 기도제목은 무엇입니까?
2.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나의 생각과는 달라도 구체적이면서도 실제적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 15:13-19

믿음의 전염

... 16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17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옷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18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받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19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겔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해피인사이드

김선준 목사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전염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의 태도가 갈렙에게, 갈렙의 믿음의 태도가 갈렙의 딸인 악사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은 함께하는 사람에게 전달되기 마련입니다.

본문 13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의 믿음은 그와 오랜 시간 함께한 동역자 갈렙에게도 전염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14장 12절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를 통해 받게 된 땅을 차지하기 위해 담대하게 싸워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갈렙의 믿음은 자신의 딸인 악사에게도 전염됩니다. 본문에서 약속대로 갈렙 대신 기랏 세벨을 차지한 옷니엘에게 악사를 아내로 내어 줍니다. 그리고 악사가 출가할 때에 갈렙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그때 악사는 담대하게 '복'과 '윗샘과 아랫샘'을 구합니다. 이는 갈렙에게 구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담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구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사도 이와 같이 담대하게 갈렙에게 복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함께하는 사람에게 전염되기 마련입니다. 선한 영향력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기 마련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세상의 가치와 기준,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여 믿음의 태도를 소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가정과 직장 삶의 환경이 변화될 것이며, 소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염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이 점차 넓어지는 은혜가 있길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시선에 위축되어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 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2.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구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위축되지 않고 믿음을 드러내며 전염시키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수 15:20-63

이 정도는 괜찮겠지?

...58 할홀과 벤술과 그돌과 59 마아랏과 벤 아눗과 엘드곤이니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60 기랏 바알 곧 기랏 여아림과 랍바이니 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61 광야에는 벤 아라바와 밋딘과 스가가와 62 납산과 소금 성읍과 엔 게디니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63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해피인사이드

김선준 목사

오늘 본문은 유다 자손의 지파가 가족대로 받은 기업들이 상세하게 기록된다. 분량이 많음에도 모두 다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인트는 마지막 63절에 있습니다. 많은 기업을 받은 유다 자손이었지만 마지막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결과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기업을 받는다 할지라도 방심하거나 안일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끝까지 순종하는 끈질김이 있어야 합니다.

63절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의 원주민이자 토착민이었습니다. 유다 자손이 끝끝내 이 족속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못하였으므로'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여 여부스 족속까지 쫓아내어 그곳도 기업으로 받았어야 했는데 유다지파는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은 마을과 성읍들을 기업으로 물려받았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한 예루살렘은 다윗시대에 가서야 정복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사사기 시대의 복선이 됩니다. 신앙에서의 안일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타협하며 안일하게 생각한 영역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집어삼킬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됩니다. 결코 쉽지 않은 태도이지만, 시작부터 포기해선 안됩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방심하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을 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작은 죄가 우리의 삶에 머물러 있다면 완전한 회개를 통해 죄의 뿌리를 뽑아 성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 안에 있는 신앙의 안일함을 내어 버리고, 작은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며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길 간구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영역이 있으신가요?
2.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작은 죄라 할지라도 참된 회개를 통한 변화와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수 16:1-3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1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엘 산지로 올라가고 2 베엘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3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벤훈론과 게셀에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해피인사이드

김선준 목사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 자손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15장을 통하여 야곱의 자손 중에서 넷째인 유다 자손들이 땅을 분배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순서상 요셉 자손들이 두 번째로 땅을 분배받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막내 중에 한 명이었지만 형들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러한 모습을 기뻐 받으셨기에 유다 자손 다음으로 땅을 분배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돈이 많은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 총명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겸손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 자손은 두 번째로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훗날 북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는 지역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먼저 여리고는 당시 가장 강력한 지역이자, 물질이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여리고 성의 세리였던 삭개오의 변화를 언급한 것도 여리고 성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베엘은 어떤 지역이었나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땅과 하늘이 연합되어진 지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요셉 자손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요셉 자손은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복을 받은 지역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고난의 삶을 살았던 요셉이 훗날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뿐만 아니라 요셉의 자손들까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단순히 세상의 가치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손들에게까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귀한 날, 귀한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보다 세상이 찾는 사람이 되고자 하지는 않으셨나요?
2.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하는 나의 삶의 영역은 무엇인지 묵상 해보고, 실천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추 16:4-10

에브라임의 연약함

4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5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앓달에서 윗 벵호론에 이르고 6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아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 9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 들도 있었더라 10 그들이 계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해피인사이드

김선준 목사

여호수아 16장은 계속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손들이 기업을 받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4절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자손의 기록 순서입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첫째이고, 에브라임은 둘째입니다. 그러면 순서가 맞는 것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 의도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주게 됩니다(창세기 48장). 그러면 본문에 기록 순서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훗날 자손들의 번창의 결과를 보면 므낫세 자손의 자손의 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당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기준 중 하나는 자손의 숫자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에브라임 자손보다 므낫세 자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왜 이렇게 역전을 역전을 이루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 에브라임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므낫세 자손이 앞으로 나오게 되는 이유를 본문 10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5장 63절에서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던 것처럼 에브라임 자손도 동일하게 계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교만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에브라임의 연약함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에게 주셨던 장자의 축복을 거두셨습니다. 다시 므낫세 자손에게 복을 주셨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모습 속에 에브라임과 같은 연약함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나의 것이라 착각하여 내가 주인 되고자 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세어 보고,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기억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2. 25년 한 해를 돌아보며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6년 한 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동부 가정예배

우리 식구 다 같이 <여호수아 16장 1-10절> 읽기

1. 하나님의 말씀을 온 가족 다 함께 읽어보아요. 읽으며 기억에 남는 단어는 아래 빈칸에 채워보아요.

2. 1월 8일, 9일 해피밀을 읽고 가정과 함께 나눌 말씀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말씀을 나누어주세요.

3.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정의 모습이었나요? 한 주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이 버려야 할 말과 행동과 습관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4.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하는 개인과 가정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인지 해피밀을 참고해서 나누어 봅시다.

5. 부모님께서 미리 기도문을 준비하시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쳐주세요.

** 아래의 빈칸에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COME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평안교회 오세요



Christ alone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Outward focus

나보다 남을 섬기며
선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Mature together

성도들이 말씀의 교제를 통해 함
께 성숙해가는 교회입니다.

Extended family

세대간의 화합과 신앙의 대잇기를
열망하는 대가족 교회입니다.

